

이름 \_\_\_\_\_ 이선민 \_\_\_\_\_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호주 Victor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1.7. 25~ 2012.06.22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i>Exercise interventions for healthy populations</i> 건강증진'관련 과목으로, 연령 성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필요한 test, wellbeing을 위한 구체적인 intervention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배움. 조금 더 의학적 지식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 흥미로움</p> <p><i>Working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i> 'CRM'관련과목, 특히 조별과제를 했던 일이 흥미로웠음</p> <p><i>Management &amp; organization behavior</i> 전반적인 행정, 인사관리, Management에 대한 사항을 배움 presentation, final test, 조별과제, essay등 다양한 과제들을 한 과목 내에 배치시켜 해야 할 일이 많았으나 덕분에 점수가 여러 과제로 분산이 되어 pass하기 더욱 쉬웠다고 생각됨</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i>Social dimensions of sport and exercise</i> '보건의료사회학'관련 과목으로, sociology와 health를 깊게 연관시킨 과목. 교수님이 내게만 특별히 내주신 creative work과제를 하는 데에 특히 즐겁게 임하였음</p> <p><i>Health &amp; diversity in a global context</i> '국제보건세미나'관련 과목으로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 특히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health를 탐구한 과목 Tutorial에서의 discussion이 주제가 늘 흥미로워 늘 재미있었음</p> <p><i>Professional practice1</i> 의료기관의 communication issues에 깊게 관련됨 마지막 평가인 그룹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음.</p> <p><i>Working with evidence in practice</i> Evidence based practice를 강조하는 과목으로, 보건통계학 및 조사방법론, 계량분석과 관련된 과목. 1,2학년 때 들었던 전공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수강하는 데에 특히 수월하였음.</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기숙사 비 : 한화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소비</p> <p>식비 : 1주일 최대 35달러</p> <p>핸드폰 비용 : 한 달에 최소 20달러</p> <p>여행경비는 열외</p>
------------------	--

##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 o ) : student village, Victoria uni
숙소비용	한 달에 한화로 150만원
숙소평가	<p>주방을 갖추고 있으며 위생을 청결한 편은 아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한국 기숙사와 달리 계약기간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 환불은 무조건 불가. 물, 전기, 가스비, 인터넷비용이 기숙사비에 포함 됨.</p> <p>샤워실은 3명이 공용으로 쓰며, 방은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음, 인터넷은 1달에 30000MB 한정임.</p> <p>규정은 방 내부에서 흡연이 불가하나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룸메이트가 share하는 공간 내부에서 흡연을 하여 불편함이 있었음. 하지만 이런 complain이 때문에 방을 바꾸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았음. Reception에서 소포, 편지를 수거하며 진공청소기, 체중계(공항 짐 무게 잴 때 유용), bug-spray등 대여가 가능.</p> <p>방 청소는 개인이, 공용화장실, 주방은 기숙사에서 청소 담당.</p> <p>flatmate를 다른 exchange 학생들과 사용하고 싶거나 혹은 현지 학생들과 같이 쓰고 싶다면 사전에 조율이 가능함.</p> <p>개인 방을 가질 수 있고, 수납장과 책상 침대 책꽂이 등 필요한 가구들을 다 배치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며, 흡연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불편한 점도 있으나 가끔 free meal, 저렴한 비용으로의 단체여행, 또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데에 기숙사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생각임.</p>
식사	직접 요리 혹은 한국음식 구매
식사비용	<p>한 주 최대 호주달러 35달러</p> <p>Aldi, coles, 그리고 city에 있는 한국상점들에서 주로 구매</p>
식사평가	<p>호주는 여러 이민족이 한 데 모여 형성된 국가인 만큼 비교적 큰 china town과 한국식당, 한국상점들이 많은 듯 하다. 식당에서 먹으려면 조금 비싸지만, 한국상점에 가면 김치, 햇반, 이외 밑반찬들을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Aldi에 가면 한국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들을 살 수 있어서 호주에서 식사를 하는 데에 크게 불편한 점은</p>

	없었다.
보험	<p>자매결연학교에서 권고한 OSHC 즉 호주에 머물게 될 국제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p> <p>호주는 medicare card가 있는 것이 좋지만, OSHC도 대부분 의료비용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됨</p>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특히 보건행정경영학과 특성 상 교환학생 가기 전에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면 관련과목을 최대한 당겨서 듣고 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의무기록사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과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시험자격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또한 병원실습이 필수인 우리학과 특성상 실습 기간, 실습 기관에 대한 조율도 교수님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고 가야 할 듯 싶다.

호주는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라서 사람들의 인종 또한 그에 따른 발음이 아주 다양하다. 나는 Original Aussie가 아닌 경우 첫 학기에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발음이 조금 듣기 어려웠다. 이에 듣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갈걸 했던 기억이 난다. 1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악센트 역양 덕분에 미국식영어, 호주식 영어 발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듣기 쉬워 듣기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따랐던 것 같다. 알찬 듣기 공부는 필수인 듯.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호주 original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와 정신, 종교 등 그들의 것을 더욱 유지하고 지키려 하는 것이 가끔 보인다. 드물게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말고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아는 강인함이 필요한 듯.

###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로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또 어학연수와 비교했을 때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교환학생 지원을 하게 되었다.

첫 학기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적응, 정착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학점을 부담스럽지 않게 신청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영어실력을 어떻게 더 쌓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고민했었으나 1년이 지난 후 생각해보면 방 안에서 혼자 하는 영어공부보다 외국인 친구들과 나가서 어울리며 듣고 말하게 되는 영어로 훨씬 더 많은 어휘력을 익힐 수 있고 동시에 자극제가 되는 것 같다. 새로 듣는 표현이나 말하고 싶은 표현 등을 모를 때는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고 집에 와서 찾아보고 단어를 외웠었다. 그 외에도 친구들에게 받은 팸송파일들을 통해, 그리고 학과 공부, 또 과제 등을

위해 읽어야 하는 수많은 article들을 통해 고급스러운 표현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과제를 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grammar에 실수가 있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과제를 하고 나서는 늘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한번씩 grammar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essay에 쓴 article들의 출처 즉, reference list를 작성할 때 Harvard referencing 즉, 하버드 대학교에서 쓰는 referencing방법을 써야 해서 양식을 늘 맞추어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 군데에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나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인터넷보다 빠른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이력서를 직접 돌리러 다녔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영어실력을 늘리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쌓으며 배우기 위해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비용도 부모님께서 어렵게 지원해주시는데 여행경비마련, 또 생활비에 보태는 비용까지 손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호주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력서를 돌리는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영어실력 때문에 사무직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호주에서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한국 시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짝퉁하다. 시간당 최저 15달러 일반적으로는 19달러. 하는 일에 따라 22, 25달러 정도 받을 수도 있으며 학교 도서관 Rover로 일하는 것도 수업 중간중간에 시간이 빌 때마다 casual로 일하는 것이어서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다.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교환학생 경로를 바꾸게 된 데에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시급, 또 알바생들에게의 대우, 또한 기회가 되면 working visa를 얻어 더 머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내게 호주에서의 알바는 아주아주 값진 경험이 되었다.

두 학기 모두 중간에 mid-semester break라고 하여 1주일~10일 정도 짧은 방학이 있는데 이때 친구의 친구, 모르는 친구들까지 facebook에서 그룹을 만들어 차를 rent하여 여행을 다녀왔다.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그 이외에도 Melbourne에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박물관, 저렴한 동물원, 사파리, 초콜릿 공장, 펭귄 퍼레이드 등 가볼 곳이 많았던 것 같다. Philip island, Great ocean road 등 여러 여행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이 두 곳으로 호주에 가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방학은 대략, 11월부터 2월 정도까지로 3,4개월 정도로 호주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친구들은 특히 이 긴 방학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개월은 공부만 하기에, 여행만 하기에 너무 긴 시간인 것 같다.

2번 째 학기는 4과목을 신청하여 조금 빠듯하게 과제와 시험 속에 흘러갔다. 2번 째 학기에 잠깐 몸이 아파 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계기로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병원에서 만났던 아픈 사람들, 4일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답답해하던 나에게 내 옆에 누워있던 희귀병을 가진 언니는 나를 늘 부러워했다. 본인은 언제 병원에 또 돌아와야 할지 모른다고 병실문을 나서는 나를 너무 부러워했다. 또한, 호주에는 생각보다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가도 하루에 적어도 한, 두 명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하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덕분에 버스에는 계단이 없으며 정차 시 승객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버스 왼쪽 앞뒤 부분에 바람을 빼는 기술이 있다. 덕분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어딜 가나 잘 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로, 정서적으로도 호주는 대학진학, 전문직취업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 농업, 공업에 비중을 많이 두는 만큼 사람들이 여유롭고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이를 보며 전체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시험, 고시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취업, 또한 때때로 실속 없는 대학졸업에 대해 각성해보게

된다.

호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다. 영어를 더욱 익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걸보면 1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좀 더 노력할 걸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또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진 호주라는 국가에서 다른 인종들의 화합과 또 생각, 문화차이를 듣고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고, 또한 방학기간 중 2개월 남짓한 인턴쉽에서도 많이 배웠다. 영어가 좋아 영어선생님을 꿈꾸다 보건행정경영학과 보건학도가 되어 호주 교환학생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영어를 좋아함은 분명하다. 또한 나의 전공도 좋다.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면 4-2학기 마지막 학기다. 취업으로 바쁘게 되겠지만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영어로 말하고 듣고 외국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전공도 좋아하는 나는, 이 모든 흥미들의 교집합을 찾아 취업분야를 찾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외국에서 여행하라고 여행경비를 보태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왔으니,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인간, 사람 이선민으로 거듭나,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후 자랑스런 순천향인으로써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있었으면 좋겠다.